

상공회의소 논고

허 범 팔
국민대학교 조교수

● 序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고유한 19세기 이입양식의 단절과 문화적 사회적 주변현실의 괴리를 긍정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도심지 대규모 건축물이 업무용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단순한 형태와 매스, 그리고 새롭고 훌륭한 고가의 외국산 자재들을 활용한 덕분에 비교적 세련되고 정돈된 모습이기도 하나 주변시설들과의 조화나 주변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미흡하며 도시기능을 감안한 연속성이나 시민의 활용공간으로서 기능적 제공이 적으며 단절된 상태로 그치고 있다. (이 도시를 사랑하고 긍지를 지니기 보다는 서로 자신의 고집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것인양 서로 양보가 없다.)

또한 그 형태나 외관에 있어서도 비교적 감각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을 볼수 있다. 이것은 곧 문화의 혼재와 방향감각의 상실이고, 윤리관이나 철학을 정립해 나갈 틈을 갖지 못한 채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으로 하는 많은 사례 들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선

첫째 /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둘째 /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서로 얽혀 움직이는 문제의 정확한 파악,

셋째 / 환경의 질에 대한 심미적인 감성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 전체개괄

기존한 환경자체가 시각적 연계성의 존중을 위해 이미 디자인은 어느 방향으로 종용되어지고, 이러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내의 역사적 특성과 지역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남대문을 중심하는 가로와 각 결절점을 관통하는 일관된 질서 체계의 표출이고(가로 화사드 통일성)남대문과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시 경관상의 수급에서 내용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시간적·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장소는 지역성·극부성으로 건국의 형태와 양식을 한계지우며 대두되고, 건축가의 숙명적 도정(道程)으로 예술적 의지와 사회환경적 판단사이든 오히려 그 이상이든 간에 기본적인고도 필연적인 투쟁의 몸부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한정성과 독자적 성격의 차이도 다음과 같은 보편적 해석으로 적용될 형식과 기능의 인간관계를 갖는다.)

남대문주변 환경지각(건축수법)의 문제는 외적·직접적·척도지각만으로 이

	세 부 내 용 물	구 분 내 용	요 구 사 황
환경가로시각권	• 건축과 도시질서축(수평환경요소) • 도시스카이라인, 외관화사드 (수직환경요소)	• 결절점간 시각으로 지각 • 형태 콘텍스트	• 전체조망의 통일성 • 도시적 분석
근접가로시각권	• 접근의 시퀀스 • 외부공간과 건물저층부(유기적접지성) • 랜드 스케핑	• 인간행위적 시각으로 지각 • 형태자체지각	• 휴먼 스케일 • 지역적 분석
실내의 활동권	• 공간구획구조 • 행태요소 • 실기능요소	• 인간행위적 이용 성으로 지각 • 부분개체지각	• 휴먼 스케일 • 이용행위자 분석



상공회의소 전경

루어질 경우 이는 무의미 해지며, 우리가 내적·정신적 작용을 통한 인식 즉 환경지각의 감각적 체험을 보다 중시 할 때 가치롭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위적 조작과 왜곡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능케 한다.) 이러한 보편적 조형성을 무시할 때 건축환경의 의미란 독존적 단위일 뿐 장소적 의미는 상실하게 된다.

본시 장소란 항시 분리되어 위치하지 않고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더우기 모든 장소들은 역사적·문화적 맥락속에서 변용해가기 때문에 공간·시간·인간의 집합실체이다.

이를 구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러한 내용의 보편적 조형성은 건축의 입지시 환경의 미와 형상이 우선 됨으로서 규제되며 수직환경요소(경사도·

스카이라인·가로화사드), 수평환경요소(도시가로축·자연경관·콘택스트)로 지면과 유기적 접지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환경가로 시각권

도시적 건축설계 방법은 내향적 접근과 외향적 접근으로 분류되고 상당한 차이의 결과가 유출된다.

외향적 작가의식의 표현은 기능의 형식상 해석으로 부터 유추가 아니라 항시 그 형식 외측(도시적 차원)에서 찾아지는 작가의지의 구현이라는 입장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남대문 주변에 기존한 모든 건축내용의 조형의사가 결국 사용자 의사와는 매우 상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 남대문 주변의 토지이용문제 (업무

시설과 남대문시장변 노선상업의 혼재)

○ 극히 근접된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한 수직성(대한화재 해상보험, 도쿄호텔 등)

○ 가로와 시각적 편차에서 빗어지는 시각적 연계성의 불능(가로축에의 무절제한 난립 색채혼합·건축지정선전무)

등으로 남대문의 존재론적 공간성조차 타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지전면을 시민공원으로 활매하여 포위된 남대문(?)에 숨통을 트이게 한 상공회의소 건물에 찬사를 보낸다.

허나 정면은 면적구성(面的構成)의 이미지 은유를 의도한 듯하나 전체적 내용이 경이적 볼륨의 양괴구성으로 지각되어(권위적 건축형식) 건물자체 디자인언

어는 어느 건물의 내용보다 단연 우수하고 압도적이나 기존 남대문의 온아한 선적인 구성과 상충되어 전면의 수직미창조차 순수한 애정으로 느껴지지 않고 피막적 기교로 까지 보인다. 또한 강력한 측면의 면성이 기존 도시축에 대면하여 강하게 부각되는 동방빌딩의 색채와 상공회의소 건물간의 지각적 불협화음,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시 스카이라인상에서 기존의 대한화재보험 건물과의 상대적 스케일 관계로 야기되는 시각적 편차는 문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의 엄청난 노작(勞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서 야기되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보다 공공 건축적 성격으로서 느낌을 받는다.

이렇듯 도시적 건축설계는 작가의 개체성 절제·사용자 건축·자연과 주변조건에 대한 최소한 인위적 조작으로 전제되는 보편적 조형성이 요구되며, 요구기능에 대한 객관적 형식해석과 합리적 분석, 집합의 접근과정, 기념비적 건축관을 배제할 것이 요구된다.

● 근접가로 시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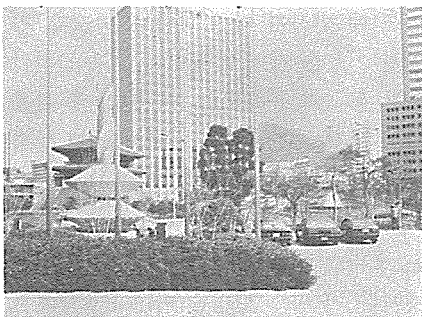
근년에 들어 정립은 내놓고 있는 몇몇 주요 작품들에서 상당히 과감한 조형적 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벽면이나 원통형의 기하곡선(MBC청사·창원시청사·창원새마을회관·외환은행남 인천지점·한국개발연구원국제연수관), 창호와 벽에 의한 면적구성과 이들의 양피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자신감에 찬 견고함(일신제강사옥·한국은행울산지점), 기존해 있는 환경메디아 적용(이대도서관·정동교회)등에서 선보인 조형성은 상공회의소 건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상



▽현관로비

△국제회의장





황 개념을 염두에 두고 다시 건축적현실로 눈을 돌리자.

전체구성은 우리나라 고유의 내구성 화강석으로 기념성·상징성 및 백의의 진취성과 청색의 반사유리를 대비시켜 청백의 우아함의 창출을 시도하였고 여기에 좌우면에는 업무 및 주동선축(상징축과 직교축)을·전면에는 상징 및 주공간축(남대문축)으로 설정, 도시적 휴식공간과 더불어 지하진입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지하진입 중 누하진입의 파티오 설정은 공간의 폐쇄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였으나 전면진입의 공간은 세밀성의 디테일을 문제시 하여 답답하게 지각된다. 이와같이 보도의 흐름에 별도로 개연된 동선내용은 각자 독자적인 휴식의 환경내용을 요구한다. (통과자의 지식수준·행위내용) 이러한 구성개념들이 확산과 가변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이 되면, 사실상 견차적으로 연결되는 동선내용의 기초가 됐어야 한다. 또한 남대문이라는 기존 환경메디아는 무수한 선에 의한 음영적 변화, 오버택스츄어적 지각인식 내용변화, 등으로 살아 변화하는 듯한 상황에 상공회의소건물은 반사유리의 도입으로 타 건물과 사이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하여 건물의 품위와 개방성을 갖도록 하였으나, 화강석 벽면에 의한 외부형상



은 힘과 활력에 의한 거대한 양괴성으로 표현되어 지각적 내용이 자칫 권위적 표현과 단조로움을 시사 할 수 있다.

일종의 공공건물적 성격인 상공회의소 건물을 사무소 건축내용으로 한계지어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우선 같은 오피스의 장르라도 각각의 업무내용상 특질이 다르게 나타나고 둘째 동일목적 성향이라도 규모에 따라 갖출 형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정립 특유의 대범함과 시원스러움으로 시전(施展)된 1층 로비와 2층의 내용은 업무통과자와 회의소·휴식공간이 혼재되어 그 장점에 힘집이 있고, 현대적 내부장식제의 적극적 도입으로 종래의 진부한 메체 선정을 일신하고 있으나, 벽, 천정,바닥의 통일보다 개별내용으로 표현되어 침착성은 절제되고 활기찬 축제의 장소로 느껴지게 된다. 1층 국제회의실 좌측 벽면의 부조는 기타 실내에 존재치 않은 색조의 내용이 독자적으로 표현되어 석연치 않다. 원형의 섰큰된 불박이 형식의 휴게내용은 훌륭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평면들의 불가해한 문제는 확장과 가변에 대한 여하한 기대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나(2층 로비는 전혀 반대의 형식), 작은 공간의 활용도 포착한 작가의 섬세한 설계의도는 높이 살만하다.

도시적 환경에 적극적 투작(投作)이라 함은 작은 설계 내용이라도 치밀하게 계획함 일 것이다. 만약 전면 야외공연 부분에 분수를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 할 시 도시공기중 불순물이나 먼지를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대문주변환경의 정화작업에 기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야경은 너무 쓸쓸하게 존재하며 을씬년스러울 정도이다. 이는 아직 건축주측이 입주한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미흡하다고 느껴지나 웬지 서운함 느낌은 버릴 수 없다.

● 결

상공회의소건물에서 표현된 조형성은 이미 우리의 감각 속에서 친근해졌고 이것이 만드는 도시의 공간감은 항상 새롭고 우리를 압도한다. 매우 섬세한 면적 비례감에서 이루어진 건물의 화사드, 전체적 매스로 표현된 화합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출된 무변의 만변(無變의萬變)에 의한 절묘함은 이 건축의 어떤 기술적 하자도 상쇄하고 남는 가치이다. 또한 가로변에 이입되는 전면의 시민공간은 남대문 전경의 전개와 더불어 가히 압권(壓卷)이다.

이제 옛 낭만이 서린 모습이 철저히하고 광범위하게 철거되고 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다. 남대문 주변에 앉아 담소하는 소박하고 청결한 여인들과 할아버지, 푸르른 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크고 작은 건물들, 자유스러운 배치이나 질서 정연함, 우리에게 친근함 이상의 정을 주는 도시 공간들은 항상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다. *